

묵주기도 성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마태 21, 42)

제1독서

이사 5,1-7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의 집안이다〉

화답송

시편 80(79),9와 12.13-14.15-16.19-20
(◎ 이사 5,7ㄴ 참조)

◎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 당신이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 오시어, 민족들을 몰아내고 심으셨나이다.
그 줄기들은 바다까지, 그 햇순들은 강까지 뻗었나이다. ◎
- 어찌하여 당신은 그 울타리를 허물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따 먹게 하셨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파헤치고, 들짐승이 짓밟아 버리나이다.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제2독서

필리 4,6-9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

복음

마태 21,33-43
〈주인은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주인은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33 “다른 비유를 들어 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화을 파고 탐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34 포도 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 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35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36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37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38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 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39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 버렸다.
 40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 없이 없애 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4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복음 묵상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것

내 것이 아니라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을
 욕심은
 내 것과 그분의 것을 구분 못하게 하는 것
 내 것이 아닌 것도 내 것처럼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마태 21, 40)

〈임의준 신부 / 가톨릭 신문〉

복음 묵상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에 등장하는 소작인들이 바로 이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포도밭 주인이 소출을 받으려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는데, 소작인들에게는 그들이 눈엣가시였습니다. 자신들이 차지할 소출을 빼앗아 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들 가운데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여 버리고 맙니다. 불편한 존재들을 없앤 것입니다.

이제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에게는 이 아들이야말로 가장 불편한 존재입니다. 아들만 없으면 포도밭을 아주 차지할 수 있는데, 아들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 또한 죽여 버립니다. 이렇듯 소작인들은 자기들에게 불편한 존재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없애 버리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제외하지 마십시오. 그 사건들을 치워 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그 사람들과 그 사건들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을 바르게 이끄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고 인내하는 과정에서 조개는 진주를 만들어 냅니다. 불편한 사람들, 불편한 사건들은 나를 고쳐 나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한재호 루카 신부)



10월 목주기도성월

성모 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목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목주기도

‘장미 꽃다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을 한 송이 한 송이 엮어서
꽃다발을 선물해 주듯이 바치는 기도랍니다.



〈바오로딸콘텐츠〉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 1〉

“성모 마리아님, 저희의 길을 밝혀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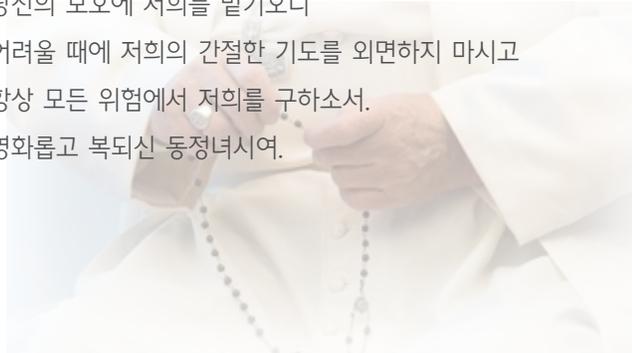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 주소서.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래아 카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사랑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알링톤 교구 성소 후원 담당자 워크숍

알링톤 교구 성소국이 매년 9월에 주최하는 ‘성소후원 담당자 워크숍’이 지난 9월 26일(토) 애난데일에 위치한 Holy Spirit Catholic Church에서 있었다. 오전 9시에 성소 담당 Michael Isenberg 신부님과 함께 시작 미사를 드린 후 2021년 여름까지 진행될 성소국 주최 프로그램과 캠프 등에 대한 소개 및 특강이 있었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이번 워크숍에는 20명의 각 본당 성소후원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하였고 온라인을 통한 화상으로 10명 정도가 참석하였다. 우리 본당에서도 김만식 재권 요셉과 이은숙 데레사 봉사자가 참석하였다.

성소국장인 Isenberg 신부님은 “지난 8월에 교구 신학생 50명으로 2020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며 “성 정 바오로 한인 성당에서 2명의 새 신학생이 나와 너무 기쁘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며 Michare Burbidge 주교님과 교구는 교구 내 다양한 민족·인종 공동체에서 더 많은 신학생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움을 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 주일 미사 안내

- 주일 미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웹사이트의 **“미사 참여 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 오전 10시 미사 초과 신청으로 **주일 오전 8시 미사를 재개** 합니다. 보다 안전한 미사를 위해서 적절하게 분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

2 평일 미사 안내

- 화요일 : 오후 7시 30분 • 수요일 : 오전 11시
- 금요일 : 오후 7시 30분 (예방 수칙은 주일미사와 동일합니다.)

3 한마음 기도 시간에 대하여

- 매일 밤 9시 한마음 기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주모경** 1번씩 바쳐 주시고, 묵주기도와 나머지 기타 기도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4 본당 웹사이트 적극 활용

- 코로나19 로 인해 자주 변경되는 상황을 본당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보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온라인 봉헌**이 신설되었고,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본당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유아세례 안내

- **유아세례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3시**에 있으니 사무실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가톨릭신문 미주판 폐간

- 가톨릭신문 미주판 폐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급 금액을 알려드리니 체크에 적을 정확한 **영문 이름과 주소**를 **이메일**이나 **문자,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ST.PAUL CHUNG CATHOLIC CHURCH (#1937)
- LAST DATE : 10/31/2020
- Refund Amount(2.55X4 weeks) : **\$10.20**
- 이메일 : ctimesusa@gmail.com
- 전화번호 : 323-351-7788

7 문화부 봉사자 모집

- 문화부 활동과 가톨릭 미디어 제작에 관심있는 봉사자를 찾습니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영상편집, 그래픽디자인, 음향장비** 등에 관심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정주용 토마스 (703-509-2287, juyong_j@hotmail.com)

8 2020년 학생견진성사

- 일시 : 10월 13일(화) 저녁 7시
- 대상 : 20명
- 주례 : 마이클 버빗지 주교님
- * 미사 시간이 평상시와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27주 주간: 예제 1-6, 1요한 1-2**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0년 9월 27일(연중 제26주일)

주일헌금	\$1,962.00
교무금	\$10,875.00
교무금(크레딧카드)	\$5,410.00
감사헌금	\$1,300.00
합계	\$20,815.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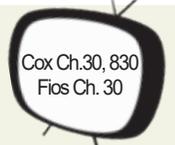
10월 7일(수) 오전 6:15-6:45 | 10월 10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윤원진 신부님의 성서특강 ‘모세를 부르심’**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틀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성 정바로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10월 8일(목) 오후 5:00-6:00
10월 9일(금) 저녁 8:00-9:00
10월 11일(일) 오전 6:00-7:00



- **특집:** 한국 가톨릭 문화연구원/평화방송 주최 심포지엄 **팬데믹과 교회(2) - 코로나 19와 시민사회의 관계**
- **걸어서 만나는 신앙**

10월 묵주기도성월

묵주기도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